

출판 관련 상, 추천도서 선정 어떻게 운영되나

한국백상출판문화상, 간행물윤리상 등 다양해

국내 출판 관련 상은 한국백상출판문화상, 간행물윤리상 등 9개 정도다. 각 단체가 주관하는 추천도서 선정은 문광부추천도서 등 6개 정도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이런 제도들이 국내 출판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출판구조의 열악한 상황에 비하면 그 수가 부족한 편이다. 좀더 특성화되고 다양한 출판 관련 상과 선정제도가 마련되고 많은 출판인들이 혜택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순수한 출판 관련 상은 한국백상출판문화상, 한국출판학회상, 간행물윤리상, 한국출판공로상, 한국어린이도서상, 한국과학기술도서상, 대한민국출판만화대상, 자유경제출판문화상,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등이다.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이 가장 오래돼

한국일보사가 주관하는 한국백상출판문화상은 출판 관련상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는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이 상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시사·교양 등 저작상 3개 부문과 사전, 문고, 기획, e-북 등 출판상 13개 부문을 시상한다. 저작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출판공로상은 올해로 31회째를 맞는다. 기획·편집 부문 1명, 영업부문 1명, 관리부문 1명, 기타 1명 등 총 네 명에게 각각 50만원 상당의 금메달을 수여한다. 이 상은 회원사에 재직중인 사원 가운데 출판문화 향상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며, 출판계 구성원에게 의욕을 북돋우고 업계 공동의 발전과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 상과 함께 한국어린이도서상, 한국과학기술도서상도 함께 주관하고 있다. 한국어린이도서상은 저작, 일러스트레이션, 기획·편집부문을 나눠 상금은 각각 1백만원이다.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은 저술, 번역, 출판부문에 각각 1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간행물윤리상은 간행물의 윤리 향상과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에 힘써온 개인과 단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윤리대상에 상패 및 부상 5백만원, 청소년부문, 저작부문, 출판제작부문, 독서진흥부문에 각각 상패 및 부상 3백만원이 수여된다.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출판만화대상은 만화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출판만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1991년에 제정됐다. 대상 1명에 7백만원, 저작상·출판상·공로상·스토리작가상·학습만화상 등 부문별 1명에 각각 4백만원, 신인상 2명에 각각 2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우수만화 제작출판사를 선정해 1천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자유경제출판문화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상이다. 자유경제 창달과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도서를 선정한다. 대상은 1권이고 2천만원 상당의 해당 도서를 구입해주고, 우수도서 2권은 각 1천5백만원, 추천도서 3권은 각 1천만원 상당의 도서구입으로 나뉜다. 구입한 도서는 각 대학 및 공공도서관, 전경련 회원사에 배포된다.

한국출판학회가 주관하는 한국출판학회상은 출판문화와 출판학 발전에 업적과 공로가

많은 인사나 단체에 시상한다. 저술·연구부문, 기획·편집부문, 경영·영업부문, 출판문화 등의 분야로 나눠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준다.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가 주관하는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은 기독교출판물의 질을 높이고 출판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상이다. 아동부문, 청소년부문, 목회자료부문, 신학부문, 일반 신앙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최우수·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또한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가 발행하는 《출판소식》지에 1회 무료광고를 게재해준다.

APPA,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등도 상 제정

그밖에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APPA)에서 주관하는 APPA출판상도 있다. 번역출판도서와 공동합작출판도서에 주어지는 이 상은 아동·학술·일반분야로 나눠 각각 금상에 2천달러, 은상에 1천달러, 동상에 5백달러, 위로상에 5백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이 제정한 중앙언론문화상에서도 출판부문을 시상한다. 언론기관이나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 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순금 30돈의 메달이 전달된다.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은 아니지만, 한국출판연구소가 주관하는 한국출판평론·학술상도 있다. 평론상은 출판정책부문, 출판시평부문, 신간평론부문으로 나눠 당선작에 200만원, 가작에 1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학술상은 출판 분야 학술논문, 학위논문, 단행본을 대상으로 최우수상 1명에 2백만원, 우수상에 1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책의 날을 기념하고 출판인의 사기 진작과 출판문화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출판유공자를 표창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금고, 한국출판연구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협동조합 등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장관 표창을 시행한다.

출판분야가 포함된 상으로는 서울시문화상, 인촌상 등이 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문화상은 관련단체, 대학교수 등의 추천을 받아 인문과학, 기초과학, 문학, 출판 등 총 14개 분야를 선정해 각 1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동아일보사와 인촌기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인촌상은 문학부문, 산업기술부문, 언론출판부문, 공공봉사부문으로 나뉘며 상금은 각각 3천만원이다.

문광부 · 출판 단체가 주관하는 추천도서 선정

추천도서 선정은 문화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공동주관하는 문광부추천도서, 우수 학술도서, 이 달의 청소년도서, 한국출판인회의가 주관하는 이 달의 책,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권장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은 10월중에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데, 신청 전 1년 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신간도서를 대상으로 하고, 예비심사, 최종심을 거쳐 최종 1백종의 책이 결정된다. 추천도서는 언론사에 발표한다.

우수학술도서의 선정은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예술, 문학, 역사 등 9개 분야로 나뉘 7월 중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도서는 신청 전 1년 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학술도서로, 재단 등 지원을 받아 발간된 도서는 제외된다. 심사위원은 각 분야 2~8인의 학계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다. 예비심사, 전문심사, 본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580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되고, 종당 17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해준다. 구입된 도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등에 배포된다.

이 달의 청소년 도서는 교육 · 문화 · 언론

및 출판계 인사 8~10인을 운영위원회로 선정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도서 선정을 진행한다. 대상은 신청 전 1년 동안 발행된 국내도서로, 청소년이 읽기 적합한 책들이다. 신청을 받은 도서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도서는 종당 3백부씩 구입되며, 각종 광고 및 홍보에 공지한다.

이 달의 책 선정은 독서인들에게 베스트셀러 위주의 독서습관을 탈피하고 양질의 도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작했다. 각계의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두고 문학,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대중문화와 예술, 청소년, 어린이 등으로 나뉘 55~60종의 책을 매달 선정해 《책과 사람》, 일간지 등에 발표하고 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는 매년 11월 10일 <어린이 권장도서 목록>을 발간한다. 한살된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별, 학년별로 권장도서를 선정하고, 학부모를 위해 교육과 책 읽기에 관한 책들도 함께 선정한다. 달마다 새로 나온 책을 장르별로 나뉘 점수를 매긴 뒤 이를 모아 매달 회지에 올리고, 이를 모아 <어린이 권장도서 목록>을 발간한다. <어린이 권장도서 목록>은 공공도서관에 무료로 배포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서평위원들을 통해 매월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하고 일간지 등에 발표한다. 또한 1년치를 모아 발간한 목록을 전국 대학교 등에 발송한다.

시상 · 선정도서에 대한 홍보 확대해야

국내 출판 관련 상과 각종 추천도서 선정은 출판사로서는 명예로운 일일 뿐 아니라, 상을 받거나 추천도서로 선정되면 큰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상을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언론에 목록을 공개하고 도서를 구입해 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정도의 홍보활동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사도 수상스티커를 붙이는 외에 특별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출판구조의 열악한 상황과 공공도서관의 구매력이 약한 상황에서 출판관련 상이나 선정제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좀더 특성화한 추천도서 선정제도를 마련한다면 출판문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근 연구원은 또 “단체 쪽에서 시상 및 선정 도서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기보다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왜 상을 운영하는가에 대한 근본취지가 흐려지는 형편”이라며, “수상, 선정 도서에 대해 서점 등과 연계해 도서전을 여는 등의 좀더 적극적인 소개와 홍보를 통해 독서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장근 기자

시상명칭	주관처	시상부문	일정
한국백상출판문화상	한국일보사	저작상(3), 출판상(13)	11월중 출품마감, 12월중 발표
한국출판공로상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 · 편집, 영업, 관리	
한국어린이도서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일러스트레이션, 저작, 기획 · 편집, 특별상	3~4월중 접수마감, 4월중 발표 · 시상
한국과학기술도서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술, 번역, 출판, 특별상	3~4월중 접수마감, 4월중 발표 · 시상
간행물윤리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공로, 저작, 편집	9월중 추천마감, 10월중 발표 · 시상
대한민국출판문화대상	문화관광부	저작, 출판, 공로, 스토리작가, 학습만화상, 신인상	10~11월중 신청마감, 11월중 발표 · 시상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상, 우수도서, 추천도서	4월중 응모마감, 5월중 발표시상
한국출판학회상	한국출판학회	기획 · 편집, 저술 · 연구, 경영 · 영업, 특별공로상	1~2월중 시상
한국기독출판문화상	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아동, 청소년, 목회자료, 신학, 신앙	8월중 응모마감, 10월중 발표시상